

어린이 책꽂이

▲안방에서 독일탐험=2006 월드컵 개최국인 독일의 역사와 문화 등을 쉽고 재미있게 만화로 구성했다.

▲달구지랑 햇불이랑 옛날의 교통통신= 우리의 전통문화를 거의 접할 수 없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옛 물건으로 만나 우리 문화' 시리즈.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계사(1·2권)=미국의 논픽션 만화가 래리 고니이 쓴 이 책은 복잡하고 재미있고 재밌는 세계사를 한 권에 소개하고 있다.

▲니가 어때서 그카노=인터넷도 못하고 최신 영화도 볼 수 없는 벽촌에 살지만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그린 동화책.

▲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삼한지-주몽(제1권)=우리나라 역사 중 가장 극적이었던 삼국시대를 그린 아동학습만화로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탄생에서부터 삼국의 건국과정까지 다루고 있다.

대한제국 황족 삶 들춰보기

제국의 후예들 정범준 지음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의 이혼은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뉴스거리였다. 왕족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사람들의 흥미의 중심사다.



저서전·신문기사·생존자 인터뷰 등 객관적 시각서 본 황실 100년사



영친왕과 일본 황족 출신 왕비 이방자의 결혼 사진.

'제국의 후예들'은 고종의 자녀인 영친왕 이은과 의친왕 이강, 덕혜옹주 및 그들의 자녀들을 포함한 대한제국 황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우리에게 알려진 황실의 이야기 중에는 일제에 대한 증오나 언론매체의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 사실과 다른 대목이 많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방자의 저서전 '세월이여 왕조여'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나오지만 당시 대필자에 의한 집필 상의 오류였다.

책은 황족에 오른 이들을 다루고 있다. 고종의 3남녀 중 순종을 뺀 영친왕 이은, 의친왕 이강, 덕혜옹주, 영친왕의 아들 이구, 의친왕의 자녀 12남9녀 중 황위에 오른 이건과 이우, 그의 딸 열여섯 명이 소개돼 있다.

저자는 집필 과정을 '파열 맞추기'라고 표현했다. 저자가 성실하게 맞춰놓은 '파열'을 감상하면서 우리나라 황실의 100년사를 들여다 보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이동현의 '깨달음이 있는 경영'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렀다. 이번 선거에 나선 대부분 후보들이 잘살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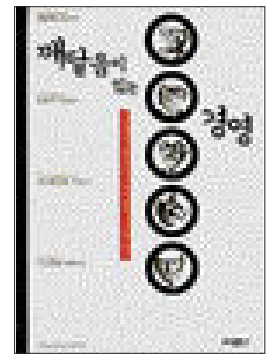
어떤 선거에서든 경제공약이 빠진 적이 없다는 점을 돌이켜 보면, 인간의 잘 살겠다는 욕망은 영원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구성원을 잘살게 하는 것이 경영의 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깨달음이 있는 경영'이란 책을 떠올려 봤다. 이 책은 몸보다 마음이 훨씬 바쁜 현실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영의 요체를 정리한 '경영의 본질에 관한 5가지 통찰'이란 부제를 달고 있다.

저자인 가톨릭대 이동현 교수는 '작은 깨달음 큰 경영'이란 제목의 서문에서 '삼시 세끼 꼬박 꼬박 밥 잘 먹게 하고 보약'이란 어머니의 잔소리에서 들어 있는 삼시 세끼 밥 같은 경영원리를 찾으려 노력했다고 적었다.

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



이 책은 '경영'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주제를 통해 기업 경영의 의미와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경영에서의 실천 문제를 짚고 있다. 피터 드러커, 마이클 포터, 게이 허벌, 톰 피터스, 잭 웰치 등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학자와 경영자 5인의 핵심이론을 정리한 내용으로 변화기를 맞은 한국 사회와 경영계에 깨달음의 지혜를 주고 있다.

아무리 위대한 비전과 뛰어난 전략이 경영자에게 의해 마련되어도 그것이 경영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혁신적인 리더에 의해 조직이 변화하고, 경쟁자와 비교해 잘하는 정도를 넘어 탁월한 수준의 경영 관행을 완성할 때 비로소 1등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다.

고객을 낚고 감동시키는 혁신이아말로 경영 대가들이 평생 매달려 얻은 깨달음의 진신사리라 하겠다.

흔히 오늘을 세계화, 글로벌 스탠더드 시대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 정리한 다섯 대가의 이론과 기법은 어떤 기업이나 국가에도 보편적인 가장 좋은 세계 법이 될 수 있다. 이제 단순히 서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이론을 배우고 우리나라 기업사정에 적용 시키는 노력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초로 우리 의 특장점 차별화된 성공 이론과 기법을 연구하고 확산하는 것이 경영학계나 경영자들의 새로운 사명임이 기 때문이다.

김영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장>



인종간 결합의 장점 파헤쳐

혼혈파워 앨런 지브

대법원이 최근 발표한 '2003~2005년 전국 249개 시·군·구별 혼혈인 현황'에 따르면 전남의 지난 2005년 국제결혼 건수는 2천95건(전체 결혼 1만1천326건)으로 국제결혼비율이 18.5%에 달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혈파워'의 저자 앨런 지브는 유전학·병리학·해부학 등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 인종 간 결합의 장점을 살펴한다. 타이어 우즈의 전제장은 태국계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것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부록별스·1만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현대인 삶 통해 본 애정·연민

뜸새 이해경 지음

중견 여성작가 이해경은 다작을 하지 않는다. 지난 1982년 등단 이래 최근작 '뜸새'까지 3권의 소설집과 장편소설 1권을 펴냈을 뿐이다.

2006년 이수문학상 수상작인 '괴아간(彼我間)'을 비롯한 8편의 단편과 미발표 신작 단편 '섬' 등 9편이 실려 있는 이번 소설집에서 작가가 풀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인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다.

표제작인 '뜸새'는 이런 작가의 시선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 작은 균열이 만들어낸 삶의 틈새를 들여다보는 주인공의 모습이 잔잔하게 그려진다. <창비·9천500원> /박선정기자 ks@kwangju.co.kr

대인동업일부동산
(010)223-1140, 5210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시라

일가공인중개사
(010)234-8216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종교로 대지 60평 4층건물 28억

믿음공인중개사
(010)471-4811
상가 건물 매도
첨단 쌍인동·월계동·삼일지역

하이링크 컨설팅
(010)383-5221
구해드립니다
병원, 학원, 공장, 아파트, 교회, 골프연습장

전원공인중개사
www.전원중개사.com
(010)629-0989
도지매도
●광안리 송정동 1150평 162평(주요매물) 평당 80만원

한일지도(주)
(010)529-1409
2006 최신 광주시 지번도 책 판매중
★ 체크된 부분은 타사와 비교 환영